



교육연합신문



2010년 1월 13일(수) 제 32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학교탐방>>> 서울고등학교

16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 수능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일방적 고등학교의 미래형 모델을 앞장서 보여주는 곳, 서울고등학교(교장 이경복)를 소개한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7면

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된다. 이를 위해 투자규모를 당초 8조5000억 원에서 2배 가까운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12면

지난 6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순일 교육감과 출입기자간의 신년공동인터뷰가 있었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실력을 갖춘 광주교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불투명

1일 2식 지급하면 위탁급식 인정

시행 못하면 수십만 명 대학생 부담 가중, 피해 커

새해 첫머리부터 교육 현장에 매우 큰 변화를 몰고 올 뉴스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계 구성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 도입을 선언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허리를 펴지 못하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층에겐 오랜만에 접하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 발표 후 전문학적인 재원 마련의 현실성,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실현가능성,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제도의 폐지, 무분별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줄을 이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졸자도 자제만을 본다면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 비교할 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거치 기간과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 운용면에서 수혜자인 대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중산층과 서민층 가정의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취

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권이 다음 달 1일 관련법안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등 필수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는데만 최소 3주 정도의 시일이 걸려 다음달 20일 경이나 제2회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등록이 완료되고 전체 재학생의 3분의2 가량이 등록을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한 듯 보였다.

교과부 또한 1학기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1학기에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사용하고 새 제도는 2학기부터 본격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한 1학기 대출분은 2학기부터 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밝혔다.

새 제도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새 제도의 시행을 기대했던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과 그 가정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가 제기됐다.

당장 기존 학자금 대출제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정은 급히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연기방향이

알려지면서 연말 관련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1월 중순 경 법안처리, 2월 초순 제2회 시행이라는 새로운 일정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야가 밝힌대로만 진행된다면 새 제도는 극적으로 1학기 시행이 가능해지고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사전협약에서 정치권은 서로 ‘네 탓’ 공방만을 하다 사전협약의마저 무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해도 1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남의 탓’만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결단과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교과부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새 제도의 1학기 시행을 위한 전방위적인 실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과 그 가정의 고통을 줄이는 것만큼 더 큰 ‘명분’과 ‘실리’는 없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서울시교육청, 내년 2월까지만 허용

서울시 교육청은 1월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급식을 인정하는 허용범위(‘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를 1월 2식을 제공하는 학교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탁급식 허용기간은 2011년도 2월 28일까지로 정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일선학교에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직영급식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1월 19일 이전에 각 학교별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하도록 하고 올 해 3월부터는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왔다.

교육청은 지난해에 중·고등학교 57교에 급식 직영전환 예산을 학교 당 1억원씩 교부했고, 올해 직영전환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직영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그동안 직영전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따른 ‘허용범위’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급식 관련기관 공무원, 학교장, 학부모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를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로 저녁급식 인원이 점심급식 인원의 20% 내외인 경우로 한정할 것이다.

단, 고등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주조리교인 고등학교의 급식운영방식에 따른다.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는 2011년 2월 28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사유를 적용할 경우 지난 해 말 현재 중학교 직영비율은 20%에서 70-8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학교는 현재 86%의 위탁급식 학교 중 30% 내외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 또는 일부위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직영전환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직영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겨울에 영어하자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선)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1,2학년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겨울 영어 캠프(2009 Winter English Fun Camp)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자연스러운 영어몰입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외국문화 체험에 동기를 주고 있다. 이번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해서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일반직 인사 단행

서울시교육청(김경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1월 1일자로 일반직과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4급 이상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는 본청 과장 10명 중 7명이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등 현장 장으로 발령된 것을 비롯해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승진 인사요인이 발생해 승진과 전보 등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 이기희 사무관(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여성공

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초중등 인사담당과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을 모두 교체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장, 교장 등 교육전문직과 교원에 대한 인사는 3월 1일자로 시행된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리딩랩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프로그램 "전국 초등학교에서 인기"



ReadingLAB은 ERP (가장적 디독을 목적으로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 독서 촉진 프로그램)를 개발, 실시하는 영어 전문도서관입니다.

리딩랩은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촉진 프로그램인

ERP(Extensive Reading Program)를 통해 다양한 영어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미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 학생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고 책을 읽은 후에는 북테스트와 단어테스트를 통해 이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책마다 일정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어 북테스트, 단어테스트를 80점 이상 통과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영어에 친숙하게 되고 자연히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8학년 사이에 나열되며 글과 그림의 비문, 문장길이, 어휘의 수, 책 내용 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분석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및상담문의: 031) 714 - 18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어항동 분당테크노파크 C동 710 (주)에듀랩